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성경본문 <민수기 21장 4절 ~ 9절>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벌써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삶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순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보게 한 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폄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이 불평했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불평 때문에 오늘도 광야 길을 걷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는 만나를 불평하고, 공급해 주시는 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심지어 그 음식을 하찮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간구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응답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불뱀 같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고난들에 대해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징벌입니다.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길을 우회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자선들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지만, 그들은 상관

없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고생은 죽음과 멸망을 대신 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마저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리셨던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덮고 계셨던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사라지자 죽을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징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 외에,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평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고난과 징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에 증거일 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눗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눗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이합니다. 뱀에 물리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약을 쓰신 것도 아니고, 눗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치료방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뱀을 치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불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을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불뱀부터 사라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대로 두신 채로, 그들에게 눗뱀을 만들어, 달아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나타난 불뱀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은 여전한데도, 생명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되살리고, 첫사랑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대에 달린 눗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그 분을 바라보면, 다시 살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2.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소서.